

남도음식문화큰잔치·명량대첩축제 글로벌축제로 키운다

전남도 2대 축제 기본계획 보고회서 다양한 육성 방안 논의

전남도는 3일 도청 정철실에서 도 주관 2대 축제인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와 '제16회 명량대첩축제' 기본계획 점검 보고회를 열어 세계적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명량항 행정부지사 주제로 열린 이날 보고회엔 각 축제의 집행위원장인 김병원 목포대 교수, 정기영 세한대 교수와 전남도·목포시·해남군·진도군 관계자, 자문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축제 총감독의 기본계획 발표에 이어, 참석자 자유 토의를 통해 성공 개최와 세계적 축제 육성을 위한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오는 9월27일부터 3일간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행사에서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국제행사 위원회를 선포했다. 올해는 전남관광의 세계화를 목표로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과 연계해 세계적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내년 10월 목포에서 열릴 예정인 '2025 국제미

식산업박람회'의 사전 행사 성격인 'Pre-미식산업박람회'를 통해 농·수산·식품 등 우수상품 품평회, 업체 수출상담회 등을 추진한다.

남도음식 명인과 함께하는 '남도맛투어' 등 남도의 색깔을 담은 '식도락 콘텐츠'를 강화하고, 축제 30주년을 기념해남도음식의 전통과 미래를 재조명하는 특별주제관, 푸드테크관 등도 신규 운영한다.

남도음식의 글로벌 콘텐츠화를 위해 '세계 맛집존' 등을 선보이고 주한외국공관 관계자와 주한미군 등 외국인 대상 팸투어도 추진할 계획이다.

'명량대첩축제'는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과

전라도 어민이 일본 수군을 상대로 울돌목에서 맞서 싸워 대승을 거둔 명량대첩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다. 전남도·진도군·해남군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올해는 역사적인 명량대첩 승전일(음력 9월16일)과 축제 시기를 일치시켜 오는 10월18일부터 3일간 진도 녹진관광지를 주무대로 해남 우수영 관광지 등 울돌목 일원에서 치러진다.

전남도는 호국 역사문화축제로서 명량대첩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콘텐츠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기술과 멀티미디어

활용한 초실감형 해전을 기획하고 역사문화 계승과 지속가능한 축제 육성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명량대첩 학술세미나도 선보인다.

지역 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관광객 중심의 체험 참여형 콘텐츠 개발과 사전 프로모션 강화를 통해 세계적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명량항 부지사는 "도와 시·군 간 유기적 협력과 관광객 중심의 친환경·사회적책임·경영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경영전략(ESG) 축제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축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사원기자

광주시, 대표 청렴도시 도약 속도낸다

29개 기관·단체 참여 청렴사회민관협정 정기회의

광주시는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고 지역사회에 청렴 의식을 확산할 수 있는 공동 이행 과제와 기관별 청렴 실천 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2019년 4월 발족한 '광주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광주시·시의회·교육청·자치구·공공기관·시민사회단체 등 29개 기관·단체로 구성됐으며 지역사회에 청렴 문화를 확산해 시민의 청렴 의지를 다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공 부문과 전지연 민간 부문 의장 등 24개 기관·단체 대표가 참여했다.

또 광주 연고 프로그램과 함께 시민들이 스포츠를 즐기면서 청렴 실천을 유도하는 청렴캠페인

추진을 위해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도 새롭게 위원으로 참여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광주FC와 함께하는 광주 청렴데이 행사 개최'를 공동 이행 과제로 선정, 오는 8월25일 광주FC 홈경기에서 청렴홍보 캠페인, 공동 관람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광주 복구의 청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대표 청렴도시 광주'의 염원을 담은 손팸말 퍼포먼스를 통해 공정과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청렴과 공정의 가치는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1급수에도 열목어, 산천어, 버들치 등의 물고기가 사는 것처럼 광주가 맑은 물이 돼 열목어가 사는 세상이 되도록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경기자



3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서 고광완 행정부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AI 활용 노인성질환 임상실증 플랫폼 개발

광주시, 산업부 바이오산업기술개발 사업 공모 선정

광주시는 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산업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8년까지 총 118억원(국비 95억원)을 투입, 퇴행성 뇌질환 대상 임상실증 AI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노령인구 전국 1위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관련 의료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많은 기업들이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임상시험의 문턱에서 좌초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가드코호트연구단)이 구축한 약 2만명의 '아시아 최대 규모 지역기반 멀티 치매 코호트'를 활용해

▲임상실증 맞춤형 대상자 선별 AI 플랫폼 ▲원격 임상시험 모니터링 시스템 ▲AI 기반 가상·합성 대조군 모델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AI 플랫폼 구축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등을 활용한 노인성 질환 조기 진단·예방을 이끌고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등 관련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전국 최초의 노인성질환 대상 임상실증 플랫폼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광주가 인공지능(AI) 기반 임상실증 거점도시가 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선경기자



전남사회단체聯 "순천대, 의대 공모 참여해야" 촉구

"의대 설립 기회 무산 우려"

전남지역 31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남사회단체연합회는 3일 "순천대는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한 전남도 공모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월, 대통령 민생토론회와 국무총리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180만 도민이 간절히 염원해온 국립 의대 설립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사진)

연합회는 또 "전남도는 정부 공식 요청에 따

라 추천 대학 선정 공모를 진행 중인데 순천대는 연일 공모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대화를 거부한 채 공모 철회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 당분간 때가 아니라 자칫하면 어렵게 얻은 의대 설립 기회를 날려버릴까봐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합회는 "의대 설립 주체는 지자체나 정치권이 아닌 바로 대학"이라며 "순천대는 전남도가 정부 요청에 따라 추진 중인 공모 절차에 반드시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재정기자

2024 제8회 포항철강마라톤

STEEL RUN

POHANG

2024. 08. 31. 토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해상누각 앞

START 09:00

참가접수

2024년 5월1일~7월12일까지

접수안내

포항철강마라톤 홈페이지
www.steelrun.kr

대회종목

10km_ STEEL RUN (전체)

5km_ FUN RUN (일반부)

_ Z-RUN (학생부)

주최 한국철강협회

주관 경북매일신문